

고흥군, 찾아가는 친절·청렴컨설팅 실시

각 부서별 맞춤 친절·청렴 방안 고민 구축 역지사지 강조·자정노력 강화 초점 두어

고흥군은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 교육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하여 지난 9월 14일부터 '부서별 찾아가는 친절·청렴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이는 10월 8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대규모 집합 교육을 탈피한 소규모 맞춤교육(컨설팅)으로 균형적 신단이 직접 실과소·읍면별 38개소를 찾아가 각 부서별 특색에 알맞은 친절·청렴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조직문화와 청렴 고흥을 구축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친절·청렴 컨설팅'은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절·청렴 시책 현황과 친절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 직원의 의견을 토론했는 시점으로 구성된다. 특히, 소극적 친절·청렴관을 뛰어넘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친절과 청렴을 바라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를 강조하여 고흥군 공직자 스스로의 친절과 청렴 마인드 함양에 힘쓰는 자정



노력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11월까지 측정 중이며, 고흥군에서는 다양한 시책 추진과 홍보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여수시, 청년 영상제작 진로탐색 도우미 참여자 모집

여수시가 새로운 일자리 영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미디어 산업의 지역기반을 마련하고 랜선 취·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 영상제작 진로탐색 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20명을 선착순 모집해 미디어 제작에 꿈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손쉽게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전 교육과정을 초보자 맞춤형 모바일 기반으로 운영한다. 교육은 10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주 동안 진행하며, 영상제작 콘텐츠 기획, 촬영, 편집 실습과정으로 구성해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학업과

직장 등으로 교육 참여의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매주 토요일 청년일자리카페에서 진행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과 병행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여수시 청년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10월 15일까지 여수시청년일자리카페(중앙시장 2층)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yeosuyc@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 청년들의 미래형 직업 준비를 돕기 위해 온택트(On-tact) 미디어 활용 프로그램을 개설했다"며 "관심 있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순천 문성마을, 농촌마을 가꾸기 금상 전국 24개 마을 경합 3천만원 상사업비 확보

별교농협, 마스크 8만장 전 조합원에 배포

지난 3월이어서 2차 지원...조합원 호응 커



별교농협이 코로나19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별교농협은 지난달 25일 '202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8만장 전 조합원(2차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별교농협은 이날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전 조합원 1인당 20매씩 8만장을 전달했다. 지난 3월에도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조합원들에게 1만1000장을 지급한 바 있는 별교농협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진척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공급도 고려할 예정이다. 보성=김덕순 기자

조합원 김 모씨(78)는 "지난 봄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울 때 지원을 해주셔서 얼마나 유용하게 썼는지 모른다"면서 "이번에 또 마스크를 지원해 주니 외출할때는 반드시 착용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별교농협 김기순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안전과 건강이 무엇보다도 우선인 만큼 마스크 공급은 현시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라며 "조합원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햇빛광양 시티투어, 감성 가득 가을코스 오는 12일부터 재시동

특별이벤트 '시티투어 인증샷·후기 작성 땡큐' 눈길

광양시가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던 햇빛광양 시티투어 가을코스 재시동을 걸고 10월 12일부터 감성 가득한 광양의 가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2일부터 중단된 시티투어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인 10월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실시된다. 가을코스는 오전 10시 10분 순천역에서 출발하여 중마관광안내소, 광양버스터미널을 거쳐 백운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에서 청정한 자연과 함께 힐링한다.

이어 광양숯불구이 음식점이 준비한 광양불고기 특화거리에서 중식을 즐기고, 코스모스 일렁이는 서천변과 동화작가 정채봉의 동심이 살아 숨쉬는 동의마을 문학테마길을 거닌다. 뱃꽃, 양귀비 등이 차례로 피어나는 사계절 꽃길 서천변은 해마다 가을이면 하늘거리는 분홍빛 코스모스로 시민뿐만 아니라 인증샷을 남기려는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며 사람꽃을 피운다. 정채봉 문학테마길은 그를 창작의 길로 이끈 유년시절과 문학정신을 담은 공공미술작품, 작가의 방 '빈터' 등이 있는 아기자기한 골목이다. 또, 광양역사문화관에서 광양의 역사를 탐방하고, 이색 카멜레온 광양와인동굴을 거쳐 구룡산전망대에서 일대를 조망한 후 오후 5시 45분 순천역에 회귀한다. 특히, '가을맞이 광양여행 홍보이벤트' 일환으로 마련한 '시티투어 탐승 인증샷&후기 작성 땡큐!' 이벤트가 눈길을 끈다. 시티투어에 참여한 관외 관광객이 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내가 쓰는 광양여행' 코너에 인증샷과 함께 후기를 올리면 2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이화업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소중한 분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며 광양의 숨은 가치를 찾아보는 즐거움도 재미를 더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감성 넘치는 인증샷과 여행후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햇빛광양시티투어는 예약인원이 주말(토·일) 5명 이상, 평일 10명 이상일 때 운영하며, 광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일반 3천 원, 군인·경로·학생 2천 원, 장애인·미취학아동 1천 원으로 입장료, 여행자보험, 식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일이 행복한 광산
매력·활력·동력

코로나19 임박 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의심2지구 상가 상인회